

지역 소식 통

정읍시청 광장서 실전형 소방훈련...초기 대응 강화

정읍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5일 오후 정읍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시청 청사 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날 훈련은 직원들의 실전 대처 능력을 높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시청 전 직원과 정읍소방서 관계자가 참여했다. 훈련은 시 청사 2관 건물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시작됐으며,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맞춰 역할분담에 따라 책임감 있게 진행됐다. 화재 경보 및 신고를 시작으로 대피훈련, 화재진압훈련, 구급훈련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강령 순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화재 초기 진화는 시 직원 자체 진압으로 실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화재 대응과 대피가 병행됐다. 이어, 정읍소방서 119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화재를 진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 당부

고창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년 겨울철에는 연통 파열, 주변 가연물 접촉, 불씨 관리 소홀 등으로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화재가 주택 전체로 번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주택이나 별도의 보일러실이 없는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및 연통 주변 2m 이내 가연물 적치를 금지하고, 취침 전·외출 전 보일러 내부 불씨가 완전히 소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통 내부 타르 및 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 연통 화재를 방지하고, 폐합판·비닐 등 불순물이 섞인 연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전북 등 단체장, 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 “지역 균형발전과 서해안권 상생 촉구”

전북 군산·부안·고창, 전남 영광·함평 등 서해안 5개 시군 단체장이 5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북 도지사 및 5개 시군 공동건의문과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사업은 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연결 구간이다.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총연장 110km, 사업비 4조7919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철도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서해안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국가 균형발전 촉진 △새만금, 한빛원전, 대규모 산업



단지 물류비 절감 등 서해안권 산업·관광 활성화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철도 건설 시 생산유발 8조8000억원, 고용유발 4만2000명, 이동시간 78분 단축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서해안철도 건의와 함께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과 ‘국도 23호선 고창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반영

도 함께 건의했다.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는 서해안권 교통망의 핵심 연결축으로, 조기 착공 시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관광·물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창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심 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핵심 도로 인프라로, 고창을 내 교통 혼잡 완화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꼽힌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82억원 확보

모항 · 도청항 일원 어촌 활력 기대

부안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총사업비 82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에 걸쳐 모항과 도청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구축, 안전방재 인프라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고령화 어업 환경 변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도화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모항과 도청항 일원 어촌마을 정주환경 개선,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 SOC 확충 호안 및 진입로 정비 등 안전방재 인프라

구축, 어항 및 어업기반시설 보강 등 어촌의 일상생활과 생업 기반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어촌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어촌회복형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더불어 앞서 공모에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변산·공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등과 연계해 지역 해양·어촌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재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성과 발표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혁신 모범도시’ 자리매김

정읍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재정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및 ‘2026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읍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을 위한 절약,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조직개편과 관행타파, 사전심의 강화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 사례를 소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이오는 정읍에서 세계로’

정읍시, 바이오 Innovation 세미나 개최

정읍시가 ‘융합과 도약’을 주제로 지난 4일 JB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정읍 바이오 이노베이션(Innovation)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읍의 바이오산업 성장을 꾀하고 기관 간 협력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개 주요 연구기관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해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소재부품장비연구소,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 등 지역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각 기관의 실무연구자들이 기관별 중점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기술 연계를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섰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어 열린 2부에서는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의 ‘정읍시 바이오산업 추진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진혁 본부장의 ‘딥테크 기술사업화와 IP투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정병엽 소장의 ‘융합 연구소기업 설립 진행사항’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오는 정읍에서 세계로(Jeongeup to Global, Pioneering Next Biotechnology)’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정읍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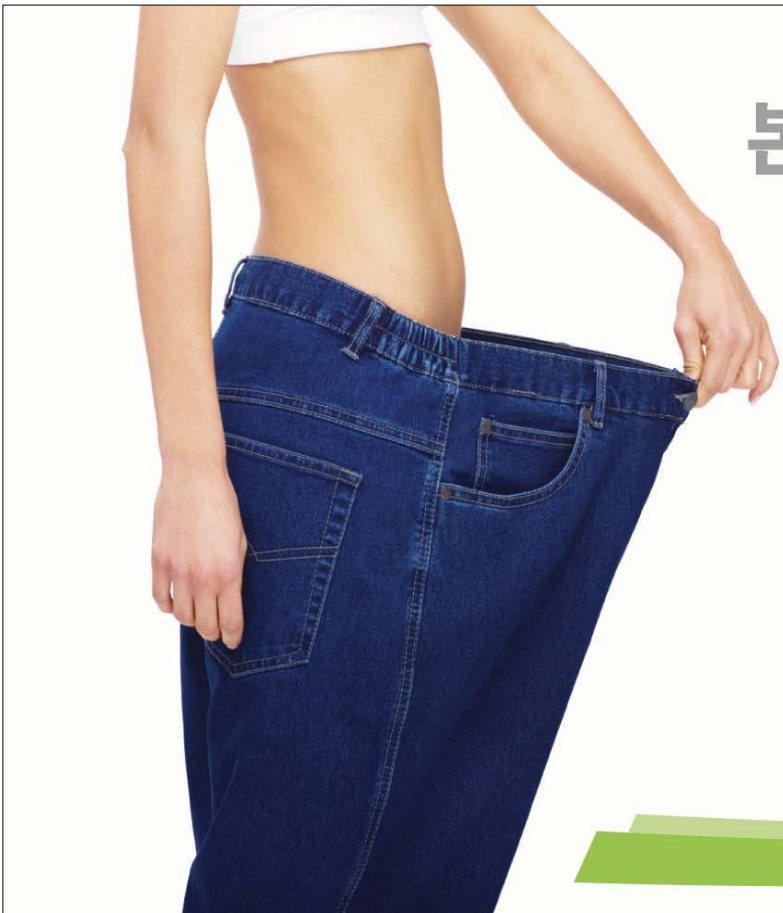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방문 국가예산확보 총력전

권익현 부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현안사업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5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을 만나 부안군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반영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현재 군 주요 건의사업은 부안 진서(왕포·작당마을) 낚시복합타운 조성(80억원), 등 총 6개 국가 예산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부안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진서(왕포·작당마을) 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소득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활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서 7일 ‘제21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

한국우리배연구회가 주최하고 정읍시가 주관하는 제21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가 오는 7일 정읍연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우리배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육성 품종 보급에 기여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에서 육성된 배 품종을 출품한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평가 심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배를 생산한 농가에게 상을 수여한다. 또한 행사 공연자 및 배 산업 발

전에 대한 시장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배 산업은 개화기 저온피해로 인한 착과 불량 및 기형과 등 생육기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해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한국 배 산업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배 수출 현황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세미나와 수확 후 저장·유통 관리 세미나가 준비돼, 배 산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